

광주 고교생들 “학교 안전 우리가 지켜요”

**‘빛고를 안전지킴이’ 350명 발대
유해시설·학교폭력 등 앱 제보
시·교육청·경찰도 개선 협조**

고등학생들이 학교 주변 유해환경과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자발적으로 안전 지키기에 나섰다.

광주지역 고등학생 350명으로 구성된 ‘빛고를 안전지킴이’가 지난 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빛고를 안전지킴이는 학생들에게 유해

한 시설이나 불량음식 판매 행위,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 구간, 우범지역, 학교 폭력 등 학생들에게 해로운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게 된다. 안전지킴이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관련 기관들에게 통합적으로 제보하고, 이후 제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보 내용의 처리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안전지킴이의 구성원들은 비록 고교생이지만 문제의 제보에 그치지 않고, 제보의 처리 행정기관 및 처리 내용을 통보받기 때문에 한층 책임있는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운동의 범사회적 확대를 위해 ‘빛고를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5개 구청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제보된 내용은 시교육청과 광주지방경찰청, 각 구청에 전달해 처리토록 한 후 개선 결과는 반드시 안전지킴이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열린 발대식은 광주시, 시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등 관계자와 청소년 안전점검단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를 안전지킴이 서약, 안전실천 퍼포먼스, 재난안전 교육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지킴이들은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긍지를 갖고 안전지킴이 활동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안전한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빛고를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안전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목화숨 따기 재밌어요”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개최한 ‘만추, 도시농촌 어울림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문익점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목화숨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잇다’ 개소

광주마을커뮤니티 공간 2호점이 화정1동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잇다’가 최근 마을축제와 함께 공간 개

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을커뮤니티공간 ‘잇다’는 ‘화정1동 무늬만학교 주민협의회’가 주축이 돼 만든 공간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축제에 주민들이 하나 둘 참여를 시작해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아

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 자생단체와 화월주 등 지역단체들이 결합하면서 지금의 마을 네트워킹 조직인 ‘화정1동 무늬만학교 주민협의회’가 됐다.

이 주민협의회는 그동안 마을축제, 마을공동체사업 등 다양한 마을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마을소통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 공간은 북카페, 놀이방, 배움교실, 대화방, 문화공연장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 시민배심원단 56명

이달까지 시장 공약이행 평가

광주시는 지난 5일 ‘민선6기 3차년도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시장 공약이행 평가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은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 이행상황을 평가 및 공약조정을 심의한다.

배심원단 운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며,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 등을 거쳐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최종 56명을 선정했다.

시민배심원단은 이달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전체회의와 분과별 활동을 통해 공약 수정·변경 여부 등을 심의한다. 광주시는 12월 중에 시민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단풍이 절정을 이룬 지난 5일 올해 마지막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도시공사, 시민감사관 5명 본격 활동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와 시민소통을 위해 시민감사관 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코리아노무법인 양정하 이사, 임정훈 변호사, 강대석 회계사, 박종석 환경연구사 바른대표, 정영범 건축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임직원의 비위 부조리, 여성발전과 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자체감사 참여,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참여, 공사 현안사업 추진 의견제시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

년간이다. 향후 시민의 만족도와 업무성과를 평가한 뒤, 2018년부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4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감사관에 대해서는 포상, 선진지 견학 등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공사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외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출범된 만큼, 앞으로 적극 지원해 업무 전반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 마지막 무등산 정상 개방...2만명 단풍 만끽

단풍이 절정을 이룬 지난 5일 올해 마지막 정상 개방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민과 전국의 탐방객 등 2만여 명이 무등산을 찾아 가을의 비경을 만끽했다.

이번 개방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18번째로, 누에봉에서 부대정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인왕봉을 관람하고, U턴해 부대정문으로 나오는 0.8km구간이 대상이다.

이날까지 무등산 정상은 올해만 4차례 개방했으며, 매년 2만여 명의 등산객이 무등산을 찾았으며 이중 5000명 가량이 정상을 밟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개방 행사에 지역 자원봉사

자 20여 명을 특별 초청하고, ‘2016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무등산 일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손수건, 컵, 포토앨범으로 제작해 정상에서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특히 이날 오후 3시 원효사 광장에서 광주산악협회 주최로 산악음악회가 열려 등산객들에게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개방에 참여해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고, 올해 마지막 개방행사까지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네 끼를 펼쳐라 ‘빛가람지킴이’는 지난 5일 광주천 유초보 앞에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빛가람지킴이 ‘Youth Eco Festival’을 개최했다. ‘빛가람지킴이’는 광주천의 생태환경보존과 아동이 안전한 광주천변의 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광주천 모니터링단으로서 2014년 7월을 시작으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